

Experience Report (파견결과보고서)

성명	백혜민	학과(전공)	화학과
학위과정	학사과정	학번	20210291
파견대학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파견(참여)기간	2024.07.01 - 2024.09.06
파견 프로그램명	Tokyo Tech CAMPUS Asia Plus Research-Oriented Program (Summer School)		

1. 출국 전 준비사항

A. 프로그램 지원과정

포탈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편인데 우연히 이 프로그램에 대한 공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지원을 결정하게 되어 담당 선생님께 이것저것 메일로 여쭙보고 급하게 지원해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선발되어 좋은 경험을 쌓고 왔습니다. 한국에서 개별연구를 했던 랩과 비슷한 분야를 연구하는 곳이 생명과학과에 있어 해당 랩을 1지망으로 지원했습니다.

B. 파견 대학에서의 안내

파견 전부터 메일로 유용한 자료를 많이 제공해주시고, 프로그램 첫 날 오리엔테이션 때 필요한 내용을 다 안내해주셨습니다. 이후에도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여러 번 메일을 드렸는데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주셨습니다.

C. 비자 신청 (비자 유무, 신청방법, 소요기간, 경비)

일본 비자는 대행사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사는 대부분 서울에 있어 등기로 서류들을 주고 받았고,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비용은 5만원이었고 1주일 만에 등기로 비자를 수령했습니다.

D. 항공권 구입 및 비용

기숙사 입사 날짜와 프로그램 일정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바로 예매했습니다. 왕복 35~40만원 정도에 구매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E. 보험 가입 방법 및 비용

삼성화재 여행자 보험 중 하나에 가입했습니다. 비용은 5만원 내외였던 것 같습니다. 동경공대 측에 영문 가입인증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본 도착 후에는 동경공대 측에서 안내해주시는 학생 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ATM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1주 간 퇴근 후마다 시도했으나 실패해서, 결국 하루 날을 잡고 점심시간에 우체국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F. 수강신청 (강의 수강도 함께한 경우) / 연구실 배정 (연구 참여 프로그램인 경우)

1지망 연구실에 배정받았습니다.

2. 학업 관련 (A. 강의수강과 B. 연구참여 중 해당되는 것으로 작성)

A. 강의 수강 (수업 환경, 수업 내용, 수업 방식, 과제, 시험, 강의 평가 등) - 자세히 기재해주세요

강의는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B. 연구 참여 (연구 환경, 연구 주제, 연구 방식, 연구 결과 등) - 자세히 기재해주세요

카이스트에서의 개별연구를 통해 Protein Assembly에 흥미가 생겨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랩에 지원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그 중에서도 In-cell Protein Crystal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연구실 출근은 9:30 전까지, 퇴근은 18:00 이후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의 사례를 봤을 때 일본의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랩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Wet lab은 이렇게 코어 타임이 있기도 한데,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좋아해서 만족했습니다.

대학원생 사수님과 실험하게 될 줄 알았는데 랩에 계신 조교수님이 저를 주로 가르쳐주셨습니다. 일본 연구실에는 주로 교수님 한 분과 조교수님 몇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원래 일본 랩의 분위기가 이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실험과 관련해 자율성을 많이 보장하셨습니다. 딱히 정해진 사수님이 있지는 않았고, 하나의 작은 프로젝트마다 관련 내용을 잘 아는 대학원생분들이 번갈아가며 실험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그 전까지 6개월 정도의 개별연구 경험이 다였는데, 첫 개별연구의 경우 사수님께서 많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혼자 실험하는 것에 익숙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대부분의 실험을 혼자 진행하며, 실패했을 때 원인을 스스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원생분들과 논의하는 등 연구에 있어 한층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율성을 보장해주시고, 제가 먼저 질문을 하면 친절히 이것저것 알려주시는 분위기였습니다.

C. 학점 인정 (해당될 경우)

강의 수강으로 학점 인정을 신청하지는 않았고,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신청했습니다.

3. 비용

A. 기숙사 (숙박)

동경공대 측에서 비용을 지불해주셨습니다.

B. 식사

연구실 출근으로 평일 점심은 학식을 주로 먹었습니다. 저녁은 기숙사 근처 마트를 이용하거나 시부야 등으로 이동해 맛집 탐방을 했습니다. 2달 간 돈을 아껴 쓸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주말에 최대한 가보고 싶은 맛집을 모두 다녀왔고, 식비로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C. 기타 생활비

교통비가 한국에 비해 훨씬 비쌉니다. 학교에서 기숙사까지는 통학 패스를 사용할 수 있어 꽤 저렴했지만 도쿄의 변화가에 다녀오려면 왕복 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디즈니랜드, 지브리파크, 해리포터 스튜디오 등에 다녀왔기에 관광에도 꽤 많은 비용을 썼습니다. 그 외에도 쇼핑이나 이자카야 비용 등을 지출했습니다.. 정확히 얼마를 사용했는지는 무서워서 계산해 보지는 않았으나 한국에서 생활할 때보다는 훨씬 큰 금액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개인에 따라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4. 학교 캠퍼스

A. 학교 안 시설 및 분위기

저는 스즈카케다이 캠퍼스의 연구실에 배정받았습니다. 생명과학 분과의 연구실은 아마 다 이 캠퍼스에 있고, 다른 학과의 연구실도 몇 개 이 곳에 위치해있습니다.

오오카야마 캠퍼스와 달리 도쿄 중심부에서 많이 떨어져있고, 학교 주변 식당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캠퍼스 내 학식 건물이 하나 있는데, 식당이 1층과 2층에 두 곳 있습니다. 제 기준 2층이 압도적으로 맛있어서 저는 주로 2층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물론 가격이 2배 정도 차이나긴 합니다..

도서관 등 학교 내 다른 시설은 사용해보지 않았습니다. 스즈카케다이의 학생들은 대부분 대학원생이어서 연구에 최적화된 환경 같은 느낌입니다.

B. 주변환경 및 분위기

캠퍼스 근처 가장 변화한 곳은 한 정거장 거리의 그란베리 파크인 것 같습니다. 종종 이 곳에서 점심을 먹기도 했는데, 괜찮은 식당이 많았습니다.

이 곳을 제외하고는, 캠퍼스 주변은 대부분 거주지라 조용해서 퇴근을 하면 곧장 기숙사로 향했습니다.

C. 그 외 사항

생명과학 분야를 연구하는 분이 아니라면 연구실 선택에 있어 캠퍼스 위치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생화학에 관심이 있어서 선택지가 없었지만, 조용한 분위기를 즐기는 편이라 스즈카케다이 캠퍼스도 좋았습니다. 오오카야마 캠퍼스의 경우 시부야와도 가깝고, 근처에 지유가오카도 있어 평일의

삶의 질은 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5. 언어 사용

저는 일본어를 못하기 때문에 랩에서 영어로 대화했습니다. 외국인 학생이 꽤 많고 대부분의 멤버들이 영어를 잘 하셔서 랩에서는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밖에서 혼자 밥을 먹거나 일상생활을 할 때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기는 했습니다. 저처럼 일본어를 모르는 분이라면 가타카나는 암기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은근 식당 같은 곳 가면 외래어로 적힌 단어가 많아서 파파고 이미지 번역이 안 되는 경우에도 뜻을 대충 추측할 수 있습니다.

2달 간 살다 보니 일본어에 흥미가 생겨 JLPT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프로그램에서 얻은 성과 중 하나입니다. 일본어를 전혀 몰랐지만 지내다보니 자연스레 조금씩 배우게 되어 이제는 따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6. 기숙사/숙소 이용(입실/퇴실 시기, 주의사항 등)

프로그램 시작 1~2일 전 입실해 프로그램 종료 1~2일 전 퇴실했습니다. 분리수거를 할 때 종류마다 수거 요일이 정해져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딱히 주의사항은 없었습니다.

7. 학교 생활

강의를 듣지 않았기에 연구실에 있는 것 외에 학교 생활은 특별히 하지 않았습니다.

8. 교환학생 지원 서비스 & 교환학생에 대한 관심도

첫 주말에 프로그램 참여 학생 및 동경공대 학생들과 아사쿠사에 다녀오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메일로 교환학생들이 함께하는 다과 모임 안내도 왔었는데, 오오카야마 캠퍼스에서 진행되어 저는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담당 선생님께서 많이 지원해주시고, 다른 학생들과 교류할 자리도 많이 마련해주셨습니다.

9. 동아리 등 교내·외 활동

동아리에는 따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10. 여행 등 개인 활동

주중에는 학업에 집중하고, 주말에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말에만 돌아다닐 수 있다보니 멀리 가기는 힘들었지만, 8월에 열흘 간의 연휴가 있었기에 이 때를 활용해 나고야에 다녀왔습니다. 일본에 오기 전에 꼭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곳으로 디즈니랜드, 지브리파크, 해리포터 스튜디오가 있었는데 연휴 덕에 셋 다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점은 본격적으로 멀리까지 움직이기는 귀찮아서 시부야와 신주쿠만 주구장창 다닌 것 같은데, 좀 더 도교를 구석구석 다녀봤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11. 그 외 도움 되는 정보 및 주의사항

사실 2달이라는 기간은 어떤 확실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소 짧습니다. 만약 이 프로그램을 통해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싶은 분이라면 여름학기 파견보다는 가을~겨울 등 더 긴 기간 다녀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졸업 계획 상 한 학기를 다녀오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거나, 방학 기간을 알차게 보내고 싶은 분이라면 여름학기 파견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번 2달 간의 경험만으로도 연구, 소통 능력, 인간관계 등에 있어 충분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12. 파견 소감

여행 외의 목적으로 해외에서 지내는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해외 대학에서 연구를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정말 드문데, 학교에서 다방면으로 지원도 많이 해주셔서 뜻깊은 경험을 쌓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에 대한 적성과 해외에서의 생활에 대한 적응 능력을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해외살이가 처음이었기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곧 관한 걱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일본, 중국 국적의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고 서로의 세계에 대해 알아가며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연구에 대해서도, 다양한 실패를 겪고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랩분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이 프로그램이 모두 해결해줄 수는 없겠지만 스스로에 대해 몰랐던 면을 발견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되든 동경공대에서의 2달 간의 기억을 바탕으로 후회없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 사진 첨부



시부야 스카이 전망대



스미다가와 불꽃 축제



아사히 스카이라움에서 바라본 스카이트리